

교육실습 소감문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4학년

(서울 대명중학교, 4/1~4/26)

사범대학 한문교육과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육실습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였다. 사범대에 입학만 했지 교직에 대하여 확신도 없었고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늘 고민에 휩싸여있었기 때문이다. 장래에 관한, 특히 교사라는 꿈에 있어서 계속 확신이 없던 2013년 4월1일 드디어 나의 교생실습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게 다가왔다. 처음 입어보는 양복도, 열 몇 살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그리고 중학교라는 장소 역시도 모두 어색했다. 내가 하는 한 마디 한 마디도 모두 확신이 없었고 동료 교생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 선생님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하루 이를 지나고 학교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어색함은 사라져갔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지기 시작해 붙잡고 싶어졌다.

교생실습생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학교전반에 관한 사항들부터 수업 실습, 담당학급에 대한 케어, 그리고 행정업무들 역시도 알아야 했다. 대명중학교에서의 교생실습은 체계화 되어있어서 1주차에는 학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 시기로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각종 부장선생님들의 교육이 있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대하여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학교에 그렇게 많은 부서가 있는 줄도 몰랐고 수업만 하는 줄 알았던 선생님들이 각각 다른 행정 파트를 담당하고 계셔서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사실도 몰랐다. 느끼고는 있었지만 학교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허투루 돌아가는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件)이 있으면 각 선생님을 거쳐 부장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 선생님께 전달이 되는 것도, 그리고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예산업무 등 또한 모두 그 체계가 유기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적잖이 놀라고 배우는 것 또한 많았다.

사실 교육을 받는 첫 주는 지루하게 느껴졌다. 빨리 담당 학급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싶고, 내가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내가 직접 학교현장에서 경험할 것들에 어떻게 적용될지 알게 되면서 그 시간들 또한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매체에서 접할 수 있듯, 학교폭력은 대명중학교에서도 가장 큰 화두이자 관심이었다. 미연에 예방하는 법, 그리고 발생 후의 처리, 그리고 혹시 모를 자살 등의 화제에 있어 선생님들도 매주 교육을 받고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는 학교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매 스쿨에서 다뤄지는 것만큼 내가 실감한 학교폭력은 심하지 않았다. 사실 학교폭력을 비롯한 10대들의 많은 사건, 사고들은 그 이유와 원인이 복잡다단한 데에 반해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학교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 달간의 교생실습이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나이지만 학교폭력에 있어 최고의 예방은 우리 어른들의 '애정과 관심'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학교의 전반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또 놀란 점이라면 요즘의 학교는 내가 다녔던 시절의 학교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이지만 다양한 동아리, 그리고 스포츠클럽 등의 활동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 놀람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담당 학급에 들어가 자기

2013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소개를 하고 조회와 종례에 참여하였다. 한참 어린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도, 시선 처리도 이렇게 사소하게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겐 쉽지 않았다. 교생선생님을 처음 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나를 신기해했고, 그래서인지 내 말에 잘 따라와 주었고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다.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하여 갑자기 다가가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올까 생각되어 천천히 조금씩 다가갔다.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자 아이들도 내 담당 과목 뿐 만 아니라 모르는 과목의 문제를 물어보거나, 대학생활에 관해,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들에 궁금해하며 그것들 답해주며 서로 가까워졌다. 선생님들께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는 대치동 아이들이라 차갑고, 인사를 먼저 안한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니 오히려 쑥스러워 하거나 막상 다가가니 반가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에게 잠깐이나마 편견을 가진 내가 부끄러웠다.

2주차부터 본격적인 수업참관이 시작되었다. 사범대에 재학하면서 학교현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교수-학습 방법에 관하여도 학습을 하였지만 실제로 참관을 해 보니 내가 그 동안 무엇을 배워왔는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 이론과 실체는 다르며, 앞으로 남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수업을 실습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문교육을 전공하며 논어, 맹자 등의 사서를 공부한 내가 중학교에 와서 해 일(日), 달 월(月)과 같은 한자를 가르치려고 보니 정말 막막했다. 내가 이렇게나 어려운 공부를 많이, 그리고 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이것일까’ 생각이 들어 잠시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나의 성공적인 수업실습을 위해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참관은 필수적이었다. 그 흔한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한 번 안해 본 내가 실습을 잘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수업참관 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담당 한문선생님의 수업은 거의 모두 참관했고, 한문과 관련이 있는 국어과, 중국어과의 수업도 참관했으며, 그 외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도 들어가 모두 참관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고 오로지 내 수업 준비에만 열중해 있어서 본인의 수업을 공개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각 과목의 수업방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적용해야지’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수업을 해보니 수업을 공개해주신 선생님들께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역시 그게 무엇이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참관을 하면서 나의 수업 범위가 결정이 되었다. 내가 갔을 때가 대명중학교의 중간고사를 얼마 앞둔 때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수업해야 하는지 선생님께서 고민이 많으셨다. 운 좋게 나는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아닌 단원을 맡아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수업참관과, 사범대에서 배운 것들을 충동원하여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를 하였다.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다. 잠 잘 시간을 아껴가며 PPT를 제작하고 한자쓰기 학습지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의 매체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다. 스스로 준비가 되니 수업 실습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드디어 3주차가 되었고 나의 수업실습이 시작되었다. 집중이수제로 한문이라는 과목은 1학년 때 모두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2시간이라는 나에게겐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졌다. 참관만 했을 때는 또 몰랐는데, 일주일에 22시간이나 수업을 하시는 한문선생님이 존경스러웠다. 무슨 일을 하든 체력관리는 필수인 것 같다.

드디어 내 첫 수업이 왔다. 열심히 준비했다는 자신감과 첫 실습이라는 부담감과 불안함, 그리고 묘한 설렘이 동시에 다가왔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했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나니 태연하게 잘 이끌었다는 점이다. 물론 퀴즈를 맞히는 학생들에게는 초콜릿을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은 높았지만 스스로 준비한 것을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80%이상은 활용하며 수업을 진행해갔다. 45분이라는 수업시간을 잘 안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계속 시계를 보며 말을 빠리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45분 내내 수업에 집중하고 퀴즈를 맞히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정말 고마웠고, 부족한 내 수업

2013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을 듣기 위해 앞자리로 와서 듣는 아이들을 보며 책임감 또한 무거워졌다. 나름대로 첫 수업을 잘 마치고 자신감이 생겨 바로 다음교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조금 상기가 되었기도 했고 앞 반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생각보다 술술 이끌지 못했다. 역시나 시간 안배를 잘 못해 나눠준 학습지 필기를 하는 시간을 주며 마무리했다.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남은 수업은 정말 기복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생실에 가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3주차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좀 유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고 지도안을 짜고 수업준비로 매일매일이 피곤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 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 피곤은 커녕 오히려 의욕적인 나를 발견하며 신기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 내가 무언가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스스로 생각도 해 보고 반성도 해 가며 수업을 하였다. 꽤 많은 수업을 하며 이제 각 반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반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스킬도 생겼다.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한문은 선생님 한 명이 1학년의 11개 반을 모두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 한 학년의 모든 반을 파악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 부담이 아니라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수업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며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았다. 대학에서는 어려운 한문 작품을 공부하는데 쉬운 한자어와 문장을 가르치는 회의감이 오히려 나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왔다. 내가 깊이가 없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1을 가르치려면 교사는 100을, 아니 1000을 알아야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많이 반성했고 '대학으로 돌아가 남은 학기 동안 열심히 살고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보통 학생들이 한문이라는 과목 자체를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을 갖거나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떻게 하면 한문이라는 과목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나에게 와서 한문이 좋아졌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담당선생님도 좋은 평을 주셨으며 심지어 처음 보는 선생님들께서도 나의 수업이 유명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부듯하고 감사했다.

마지막 4주차가 되어 수업실습은 끝이 났고 담당 반의 담임활동을 열심히 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자습을 시키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시간이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늘 밝았고 오히려 나에게 적극적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한문지식보다 내가 아이들에게 받아가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내가 교육실습을 하며 한 뼘은 더 성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으며 전공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도 한 시간들이었다. 담임활동을 하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 반에 도난사건도 있었고, 몇 차례 싸움도 있어서 말리기도 했으며 아이들의 장난으로 창문이 두 번이나 깨지는 일이 있었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다. 혼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담당 선생님들께 일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교사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 이렇게 좋은 일,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과는 돈독해져갔고, 담당선생님들의 신임도 얻었다. 이제 벌써 교육실습이 끝난다는 것이 너무도 서운했고 아쉬웠다.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았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위해 작은 선물과 개개인에게 짧은 메시지를 적어주기로 마음먹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특별하고 각별하게 다가왔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내가 떠나보낼 수 있을까, 내력놓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고 중간고사 격려, 응원과 동시에 마지막 편지와 선물을 주었다. 몇 몇 우는 아이들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것이 한 달간 내가 열심히 실습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 슬프면서도 부듯했다. 학과지도, 학급지도 선생님을 비롯하여 고마운 선생님들께도 감사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드리며 마무리했다. 그 때까지도 나지 않던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텅 빈 우리 반 앞에 가셔야 마지막이라는 실감이 났다.

2013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이렇게 4주간의 나의 교육실습은 끝이 났다. 교육실습은 한 과목이 아니라 사범대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과도 같은 경험이다. 사범대생을 비롯한 교직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과 이런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에 기쁘다. 그러니 교육실습을 혹시나 부담스러워 하는 학우가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 해주고 싶다. 여러 감정들을 갖고 떠나며, 나의 교직에 관한 생각 역시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더불어 나에 대한 반성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해야겠고 남은 학기의 수업 역시 '점수 따기' 식의 공부가 아닌 내실을 더욱 다지고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로 여기며 얼마 남지 않은 학기 역시도 마무리해야겠다.